〔報 文〕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18, No. 5 (1994) p. 727~738

# 90년대초 복식에 나타난 가벼움에 관한 고찰

최 윤 미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Concept of Lightness in Fashion of the Early 1990's

**Yoon-Mi Choi**

Dept.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

(1994. 9. 2 접수)

**Abstract**

It has been representing the delicate changes which express new sentiments through the floating, fluid, free look with the transparent, sheer material in fashion during the early 1990's. The concept of lightness is selected to describe the phenomenon of recent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lightness as external forms and internal meaning in fashion of the early 1990'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ashion magazines such as American Vogue, Italian Vogue from 1987 to 1994.

The characteristics of lightness of fashion in the early 1990's are as follows;

The external forms are consisted of the material such as the transparent, sheer, soft material, of slim and bell silhouette which occupying the more space in bottom, of the drapery, pleats to shape the unfitted look and is identified as the open, whole, indeterminate and planar intergration form according to the catagory of clothing form suggested by Delong.

It is also the reflection of the social changes which is getting out of the modernity. It is the results of the dominant social state which are diffused the sensual pleasures, transitoriness.

## Ⅰ. 서 론

옷은 그 시대의 반영이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및 가치관등이 옷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90년대는 분명 '80년대와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93년 2월호 보그(Vogue)는 패션 경향에 대해 부드러운, 얇은, 긴, 느슨한 (Soft, Sheer, Long, Loose) 이라하며, 가볍고 유연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옷장에 있는 몸에 꼭 맞는 자켓과 미니 스커트는 가까운 디자인 학교의 자료실에 갖다 줄 것을 충고하고 있다.[1] 즉 전반적인 분위기의 변화는 이전에 유행했던 스타일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90년대 초 패션계에는 그런지 스타일(Grungy style),[2]

1) Vogue (U.S.A.), 1993년 2월, p. 183.

2) 그런지 스타일(Grungy style)은 90년대 미국 시애틀(Seattle)의 해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음악하는 청소년 하위 문화 집단 스타일을 가리킨다. 해변 도시의 습한 기후로 인해 여러 겹의 옷을 껴입으며, 낡고 헤진 빛이 바랜 누더기를 걸치며 거리의 부랑자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자세한 내용은 Vogue (U.S.A), 1992년 12월호, pp. 254-60. 참조.

히피 스타일(Hippie style),[3] 벼룩 시장 스타일(Flea-market style)[4]등이 다양하게 등장하였으며, 전반적 특징은 흐르는 듯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이다. 이러한 스타일이 하이 패션에서부터 거리 패션에 이르기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간자(Organza), 쉬폰(Chiffon), 레이스(Lace)등 투명하면서도, 비치는 소재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80년대 패션[5]과 다른 새로운 감성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 여권의 신장과 더불어 강조되었던 자켓의 어깨선과 외곽선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정장의 개념도 자켓과 치마의 조화뿐아니라 자켓과 바지의 조화[6]로 변화되어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즉, '80년대의 얽매인 듯하며 신분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무거운 분위기는 부드럽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에서 느끼는 가벼움은 90년대초 패션 뿐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날고 싶은 가벼움' 이 표현은 지난 시대의 무거운 신분 상징으로부터 가벼운 스타일 상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문구는 90년대초 삶의 방식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가벼움은 삶의 질(Quality)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며, 불변의 가치가 아닌 유동적인 가치 추구를 일컫는 것이다. 신분 상징의 축적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다분히 감정적인 감성, 감각의 고양을 나타낸다. 90년대초의 문화적 속성은 저질적인, 얼빠진, 도피주의적인, 표준화되고 상투화된, 순응주의적이며 천박해지는[7] 이라고 묘사된다. '80년대의 시작은 '70년대의 불건전함에 대한 반동으로 이루어진 건전함이 내포되어 있다. '80년대를 특징짓는 요소로는 동등하게 지녀야하는 삶에 대한 의무로 인한 무거움, 숨기고 싶은 사실들, 쾌락주의, 육체에 대한 숭배, 무관심, 개인주의, 과장되고 섹시 심증을 유발하는 형, 유행의 전성기와 이로 인한 디자이너들을 향한 숭배(상표에 대한 충성도), 헬스 클럽 및 미용 센터의 필수적인 수강, 패스트 푸드등, 자유의 시기가 아닌 의무의 시기이다. 가벼움의 시대는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허무한 무거움은 다음을 예상하게 한다. 부의 축적은 이제 접어두고,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 신분 상징의 과시에서 이제는 스타일의 상징의 추구 즉 실제적이고 기본적 기능으로 선택된 물품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벼움에 대한 욕망은 삶의 하찮은 선택에까지 나타난다. 여가를 선용하는 방법, 먹는 방식, 그리고 집을 장식하는 방식등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식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감성 표현은 현 사회의 변화된 생활 방식 및 가치관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가벼움이라는 말은 90년대초 복식에 나타난 변화서술에 많은 면을 드러내주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90년대초 복식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위해 가벼움이라는 기본 개념을 통한 복식의 양식적 이해를 꾀하고자 한다. 양식적 연구 방법이란 개별적 사실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기본 개념으로 묶어내어, 그 역사적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가벼움이라는 기본 개념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들이 이루어내는 의미있는 이야기를 읽고자 한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3) 히피 스타일(Hippie style)은 1960년대말 기성 사회와 기존의 법규 관습에 반발하여, 몸치장, 생활따위에 무관심하며, 지리적 유동을 하는 보헤미안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긴머리와 드레이프진 드레스를 착용한 하위문화 집단 스타일로 1992년 패션 테마로 재등장. 히피 스타일에 대한 내용은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2), 1986, pp. 69-89. 참조.

4) 벼룩 시장 스타일은 벼룩시장(예, 뉴욕의 26번가)에서 볼 수 있는 지난 시절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조잡한 이국적인 장식, 큰 꽃무늬, 레이스 뜨게등이 그 특징이다. 자세한 내용은 Vogue (U.S.A.), 1993년 4월, p. 147. 참조.

5) 1980년대 패션에 대해 호웰(Georgina Howell)은 활동의 시대, 부의 축적에 대한 관심, 육체에 대한 숭배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Vogue (U.S.A.), 1990년 1월. The '80s 내용 참조.

6) 오뜨-꾸뛰르 컬렉션에 등장한 바지에대해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는 "꾸뛰르에서의 바지는 불과 5년전만해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꾸뛰르적인 현란함과 과거의 답습으로는 더이상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Vogue (U.S.A.), 1993년 3월, p. 314. 참조.

7) Walker, J. A., 정진국역,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서울 : 열화당, 1994), p. 20.

같다.

첫째, 복식 현상에 대한 양식적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 개념을 통한 복식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둘째, 가벼움의 정의 및 적용의 예를 밝힌다. 또한, 현 사회의 기본 특성은 자본주의하에서 일상생활의 부분인 대중소비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하비(Harvey)의 현대자본주의의 축적체제상의 유연화과정을 검토하며, 가벼움으로 나타나는 사회 제반 현상을 살펴본다. 세째, 복식에 나타난 가벼움을 밝히기 위해 1987~1994년 동안 잡지에 나타난 사진 및 기사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외적 형식 및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인 흐름의 반영으로 복식에서 나타난 가벼움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 양식의 외적 특성 및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과거의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복식,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과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미래 복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양식적 연구 방법을 시도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복식 현상에 대한 양식적 연구 방법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제작자 혹은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새로운 의복이 시장에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의복 가운데 대중의 선택에 의해,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복식이 나타난다. 수 많은 스타일 중에서 왜 특정 스타일만이 대중에게 선호되는가? 다시 말해서, 그 시기에 선택된 특정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어떤 요인이 선호되었기 때문인가? 특정 스타일의 외적 형식에 내재된 의미는 무엇인가? 등은 주된 관심사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앞으로 대중에게 선호될 스타일의 예측과 관계된다. 과거에 나타났던 패션, 현재에 유행하고 있는 복식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패션에 대한 길잡이를 얻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래에 전개될 복식에 대한 전망은 과거 복식에 대한 인식과 항상 상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연구를 통해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목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이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복식 현상에 대한 연구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복식 현상에 대한 이해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복식 현상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이해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살펴볼 때, 자연 과학은 설명의 방법을 사용하고 정신 과학은 이해의 방법을 끌어들인다. 즉, 복식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치 및 특성은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해는 의미의 파악이요, 감정이입적인 공동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복식 현상에 대한 연구는 특정 복식 현상의 의미와 가치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며 접근한다. 개별 작품의 이해를 토대로 시대 양식을 가늠하고 민족 양식을 논의하며 더 나아가 세계양식을 이해한다. 그럴 때 부분은 전체를 향해 열리며,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게 된다. 우리의 이해는 상호간의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경험을 공유하게 될 때에 타당하다. 이해의 근본 형식은 인간적인 이해인 것이다.[8]

현상의 다양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 현상들을 집단으로 모은다. 그리고 모아진 집단을 가장 일반적인 범주들에 따라 커다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것들 속에서 더 큰 질서와 명료함을 획득한다.[9] 복식문화에 대한 범주화를 양식의 의미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창작 주체의 정신적 특성 또는 경향에 따라 분류되는 역사적 양식, 창작의 재관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 장르 양식, 창작 자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형성 가능성에 근거한 기본 양식 등 크게 세 가지[10]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 양식에는 개인 양식, 시대 양식, 민족 양식이 속한다. 복식사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시대 양식적 구분은 고전시대 이래로 행해져왔다. 고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양식등이 그 예이며, 기준이 된 것은 시대 양식적인 특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대 양식적인 접근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내용이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이기때문에 그 정보의 내용을 곱변하는 현 사회의 예측에 사용하는데 미흡한 감이 없지않다. 이에 대해 복식 창작의 자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형성 가능성에 근거한 기본

8) Coreth, E., 신귀현역, 『해석학』, (서울 : 종로서적, 1986), pp. 51-75.

9) Tatarkiewicz, W., 이용대역,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서울 : 이론과 실천, 1990), p. 10.

10) 최윤미, "복식사 연구 방법에 있어서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1, pp. 24-6.

개념을 찾는 기본 양식적인 이해가 대안적 사적 연구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복식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면적·입체적], [구조적·비구조적],[11] [드레프트·테일러드],[12] [직선적·곡선적], [고전적·낭만적], [기능주의적·표현주의적], [서구적·동양적], [남성적·여성적], 실루엣 형태를 지칭하는 [H(원통형)·X(모래시계형)·h(버슬형)],[13] 들롱의 A.B.C. (Apparel Body Construct)를 보는 다섯가지 기본 개념[14]으로 [닫힘·열림], [전체·부분], [평면분리·통합], [평평함·둥금], [한정적 형태·비한정적 형태]이 연구·제시되었으며, 기본 개념을 통해 복식 현상을 이루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본질적인 형성 가능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기본 개념은 그 특성상 복식 현상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요소이며, 기본 개념은 한시기에 쌍을 이루는 어는 한편이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어도 기본 개념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벼움이라는 기본 개념을 사용하여 90년대초에 나타나고 있는 복식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복식의 가벼움이라는 그 양식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한다.

## Ⅲ. 가벼움의 정의 및 사회 현상으로서 가벼움에 대한 이해

### 1. 가벼움의 정의 및 사용

본 연구에서 복식 현상 서술을 위해 사용하는 '가벼움'의 정의 및 일반적인 사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벼운'은 '가볍다'의 명사형이다. '가볍다'의 사전적 정의를 일상에서 사용되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몸짓과 자세를 표현하는 '움직임이 날쌔고 재다' 혹은 '움직임이 약하거나 가늘다'.[15]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 가뜬하거나 홀가분하다'.[16] 일상에서 사용되는 '책임이 적다'.[17] 의생활에서 사용되는 '옷차림이 가뜬하고 경쾌하다'.[18] 사물의 상태와 형태를 묘사하는 '무겁지 않다'등의 의미가 있다.[19]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벼움'이란 용어는 우선 무겁지 않다라는 '무겁다'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볍다'라는 말이 '무겁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상에 대한 인식의 예를 찾아 보면, 엘레아 학파의 창설자인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기원전 약 520~450년)가 있다. 그는 존재 본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 모든 것은 존재와 비존재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존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빛과 불, 가벼움, 따뜻함이, 비존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밤, 어둠, 무거움, 차가움의 대립된 쌍으로 온 세계가 양분되었다고 인식하였다.[20] 즉 존재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해답을 가벼움—무거움이라는 쌍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틀은 현시대를 서술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예술 분야에서 고전적인 가치 및 그 기준에 부응하는 것 혹은 고급 문화를 지칭할 때 '무거움'이라는 말이, 그에 반대되는 의미 즉 고전적인 가치 및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또는 저급 문화, 대중 문화를 지칭할 때 '가벼움'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구체적인 예를 아도르노와 문학 평론가 임규찬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 문화의 성격 규정을 위해 네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아도르노는 고급문화와 저속 문화, 진지한 예술과 가벼운 예술사이의 분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가벼운 예술은 자율적 예술의 그림자 몫을 맡아왔다. 그것은 진지한 예술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양심적 가책의 모습이다. 진지한 예술이 사회적 전제 조건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결핍하게 되는 진실, 그것을 가벼운 예술은 자신의 모습으로 삼고 있다.[21]

11) 강진석, "샤넬복식에 나타난 기능주의와 클래식 스타일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0, p. 15.
12) Horn, J. and Gruel, M.,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81), p. 218.
13) Kroeber, A., "On the principle of order in civilization as exemplified by changes of fashion", 『American Anthropologist』, 21, 1919, pp 235-63.
14) Delong, M., 『The Way We Look』, (Ames: Iowa State Univ., 1987)
15) 박용수, 『겨레말 갈래 큰사전』,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 141.
16) Ibid., p. 161.
17) Ibid., p. 560.
18) Ibid., p. 579.
19) Ibid., p. 1041.
20) Zeller, E., 이창대역, 『희랍 철학사』, (서울 : 이론과 실천, 1991), pp. 77-81.
21) Walker, J.A., op. cit., pp. 88-9.

즉 사회내에 계층구조로 존재하는 문화적 분열상태를 진지한—가벼운의 대립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있다. 또한 문학 평론가 임규찬은 현기영의 소설 '마지막 테우리'에 대한 평에서 이 소설이 지닌 무게를 오늘 이 시대의 가벼움과 대조시켜 강조하고 있다.

> 현기영의 소설 '마지막 테우리'는 역사의 무게를 견뎌낸 질긴 삶에 대한 무거움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급증에 걸린 80년대로부터 더 빠르게 90년대로 변화된 사회에 대해 '마지막 테우리'의 '무거움'이 오늘의 '가벼운' 감수성과 마찰될지라도 그의 문학은 빠른 리듬이 아닌 둔중한 놋종소리로 긴 여운을 남긴다.[22]

라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문학 예술 분야에서 물질주의시대 도래 이후 고전적 기준의 감각화되고 변질된 가치를 나타낸 소비 대중문화의 특성묘사를 위해 '가벼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벼움'이란 말이 관심을 불러 일으킨 계기로 1984년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다. 그는 우리 삶의 무거움과 가벼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니체의 모든 것이 앞서 체험했던 그대로 반복된다는 영원한 재귀설은 신비스러운 사상이다'라고 전제한다. 이러한 반복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 즉, 만약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수없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혔듯이 영원에 못박힌 꼴이 된다. 그러므로 영원한 재귀의 세계에서 모든 동작은 견디어낼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의 짐이 지워져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니체는 영원한 재귀의 생각을 가장 무거운 무게라 일컬었다. 만약 영원한 재귀가 가장 무거운 무게라면 우리들의 삶은 이 배경 앞에서 아주 가벼운 것으로 찬란하게 나타난다고 인식하고자 한다. 이 영원히 사라져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삶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은 아무런 무게도 없는 하찮은 것이며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가벼움이라는 용어로 서술하고 있다.[23] 쿤데라가 해석한 삶의 가벼움은 현시대를 잘 드러내주는 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위에서 '가벼움'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와 문학 및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 '가벼움'—'무거움'중 무거움으로 서술되는 것이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가치 판단의 문제는 유보하기로 하며 본 고에서 사용되는 '가벼움'은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사회 현상으로서 가벼움에 대한 이해

### 1)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벼움의 유래

현 시대는 근본적인 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와 탈현대의 과도기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서구에서 125년간 걸쳐 형성된[24] 현대성의 기본 이념은 18세기 합리주의적 계몽주의 운동의 기계론적 철학에 의해 이성의 능력에 대한 믿음, 기계론적 자연관, 진보의 교의 등으로 압축 요약된다.[25] 탈현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현상들은 자본주의하에서 일상생활의 부분이 된 대중 소비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보다 본질적인 토대를 추적하기 위해 현대자본주의에 나타나는 축적체제상의 유연성 증가를 하비(Harvey)의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2차 대전이후 지속된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적인 호황의 기초를 이룬 노동통제, 기술복합, 소비관습, 정치—경제적 권력의 형태가 1973년부터 정지하게 되며, 급격한 변화와 유동성, 불확실성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보다 유연한 노동과정과 시장, 소비관습의 급격한 변화, 여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의 문화적 전환이 결부된 이 생산과 유통체계의 변화를 하비는 유연 축적 체제로 이행한 것으로 이해한다.[26]

이러한 축적체제상의 변화는 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헤게모니가 흔들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기존의 정치—경제적 권력 체제가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모순들에 대처하기에는 그 경직성으로 인한 역부족으로 유연축적이라는 새로운 축적체제의 탄생이 야기되었다고 한다. 유연축적(flexible accumulation)은 노동과정과 노동시장,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유연성에 의존

22) 한겨레 신문, 1994년 6월 29일, p. 9.
23) Kundera, M., 송동준역,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서울 : 민음사, 1988), pp. 11-4.
24) Walker, J. A., op. cit., p. 93.
25) 사회문화연구소 편, 『현대와 탈현대—전환기의 사회인식과 그 탐색—』,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1994), p. 71
26) Ibid., p. 80.

하며, 정보와 지식에 의해 사적·공적 결정과정의 시간 지평을 축소시키고 위성통신과 수송비의 감축으로 그 결정결과를 즉시 더 광범위한 여러 공간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시간—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수반한다. 시간—공간의 한층 더 강도 높은 압축 단계로 인해 삶에 혼란과 분열적인 충격을 가했다. 우선 유연축적은 그전 체제의 경직성을 회피하는 동시에 자본의 순환시간을 엄청나게 가속화시켰다. 소비의 영역에서는 유행을 동원하고 상품소비로부터 훨씬 주기가 짧은 서비스의 소비로 변환함으로써 경쾌성과 일시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상품생산에서도 인스턴트식품이나 일회용품, 또는 재빨리 대체되는 것들이 주요상품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로플러가 지적하듯이 가치체제구조에 있어 순간성을 창출함으로써 합의가 붕괴되고 사회내에서 여러 가치들이 다양화되는 맥락을 제공한다.[27]

이러한 변화가 문학과 예술 영역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으로 논의되었다. 이 탈현대적 문화 양식에서는 모더니즘과 달리 대중 문화와 고급 문화의 경계, 장르간의 경계들이 해체되고 주체가 분산된다. 이제 본격 모더니즘의 심각함은 혼성 모방, 냉소주의, 상업주의, 유희성, 허무주의로 대체되며, 대중주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온갖 형식과 장르들의 절충적 조합속에 옛것에 대한 향수와 새것에 대한 매혹을 뒤섞고, 종종 있는 그대로의 세계속에서 즐거움을 취하며 미학적 스타일과 다원주의속에서 행복하게 공존한다고 지적되었다.[28] 이 문화적 현대성은 새로운 도시적 공간과 발생하고 있던 소비 문화의 경험에 크게 영향받은 현대성의 경험양식과 연관된 것이었는데, 새로운 현대 생활은 시간의 불연속, 전통과의 단절, 현대가 가진 순간적이고 덧없으며 우연적인 본성에 대한 감수성을 촉발했던 것이다.

**2) 가벼움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회 현상**

**(1) 여가의 활용**

서점과 집의 서가를 살펴보면 전문 서적은 자취를 감추고 소설류가 그나마 눈에 띄이는 정도이다. 창작물의 대부분을 소설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서적 자체도 이야기식으로 적혀지고 있다.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읽기 현상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중의 문화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판 문화의 경우도 양적인 급성장을 통해 출판사, 서점이 대형화되고 독서문화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발표되는 소설들이 몇권의 묶음으로 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톨스토이 장편을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최근에 발표되는 소설에서 똑같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로 쓰기와 활자의 크기가 커져서 쉽고 빠르게 읽혀지며, 소설이 여러권 묶음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상업주의적[29]인 방편의 하나일 뿐이다. 또한, 지하철에서 대다수가 읽고 신문은 스포츠 신문이다. 스포츠 신문을 읽기 위해서는 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할 필요가 없다. 그날 그날 이루어진 결과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벼운 읽기의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는 유럽에서 산업주의의 시작과 함께 교통망이 발달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잇는 고속도로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장거리 여행자가 늘어났다. 이동거리내에서 무료함을 잊기 위해 읽을거리를 찾았고 도피물을 탐닉했다. 그러한 대중들이 읽을 거리로 도피물로써 저렴한 대중잡지나 대중소설들이 탄생하였고 이를 영국의 철도 문학[30]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대중적 주간지들과 대중적 소설들은 영국의 초기 대중 문화가 그러했듯이 일반 서민들, 공장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잊게 하는 현실 도피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값싸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이며, 대중오락인 것이다. 이러한 무료함을 잊기 위한 수단 또한 다양해서 이탈리아의 낱말 맞추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20페이지 정도의 La Settimana Enigmistica[31]는 가벼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사적인 정보는 전혀 담고 있지 않다.

현 시대에 대중적인 여가 선용으로서 손쉽고 값싸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활동으로 영화 관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흥행에 성공하여 관심을 끈 영화

27) Ibid., p. 90.

28) 서규환,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도전과 한계", 『사회와 사상』, 23호, 1990년 7월, pp. 272-6.

29) Lowenthal, L., 강현두역, 『대중시대의 문화와 예술』, (서울 : 홍성사, 1980), pp. 316-7.

30) 강현두편,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 : 나남, 1991), p. 27.

31) Lei (Italy), 1992년, 2월, p. 44.

로 사랑과 영혼(Ghost),[32] 프리티 우먼(Pretty woman)[33]등이 있다. 이러한 영화는 우화적인 줄거리의 가벼운 즐거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어린이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는 동화의 주인공들이 월트 디즈니사(Walt Disney)에 의해서 인어공주(Little Mermaid),[34] 미녀와 야수(Beauty and Beast)[35]로 제작되어 이는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 잡아 허리우드 성인 영화 대열의 맨 앞쪽에 서는데 성공하였다.[36] 이러한,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현실의 복잡함의 대안적 해결로 환상적이며 우화적인 가벼운 가상의 세계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들 역시 유우머있고, 풍자적이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2) 관심의 대상**

건강에 대한 관심은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지금까지 즐기던 단백질과 지방이 심장병과 고혈압의 원인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식사 자체도 고기의 양이 줄거나 생선 또는 야채로 대치되는 칼로리가 가벼운 식사로 변화하고 있다. '1940년대 뉴욕의 훌륭한 은행가란 비만형이어야 했다. 배는 번영의 심볼이었으므로 그러나 현대의 훌륭한 은행가란 허리가 날씬해야 한다. 그것은 활동적이라는 표시나까'라는 풍자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의사들은 허리 둘레치수와 수명은 반비례하는 것이라고 경계시키고 있다. 현대의 대도시를 둘러보면 자연식 레스토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어로빅, 헬스클럽의 간판들이 즐비하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좀더 가벼운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관심의 증가는 각 회사나 잡지들이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 및 음식을 앞다투어 소개하게 하며,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다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2년전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식품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의 변화에 맞추어 다이어트 음료, 식이섬유 음료, 저칼로리 식단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실내장식**

이밖에 사는 공간에서 기능적인 집, 하이 테크놀러지는 80년대와 연상되는 회미한 기억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실내장식에 있어 과거의 권위적, 형식적 스타일 대신 부드러움과 투명성, 미적인 가벼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재료로 크리스탈, 유리, 반투명 소재등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실내 장식에서의 투명 소재의 관심의 증가로 파리의 장식 박물관(Musée des Arts Dēcoratifs)은 1991년 10월에 Rene Lalique, Oslere등의 유리를 소재로한 다양한 실내 장식품의 전시를 개최하였다.[37]

## IV. 복식에서 나타나는 가벼움 및 형태 분석

### 1. 복식의 가벼움에 대한 사적 고찰

본 고는 90년대초에 나타난 복식의 가벼움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복식의 가벼움은 현 시대 뿐아니라 복식사에 다양하게 나타내며, 18세기 프랑스 혁명기에 그 뚜렷한 특성이 나타난다. 혁명복의 특징은 "옷을 입고서도 나체로 보이게 만든다." 점이다. 혁명기의 분위기는 절대 왕권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려 하였다. 여성은 이러한 해방감을 표현하고자 얇은 모슬린으로 된 투명한 그리이스 풍의 옷을 입었다.[38] 또한 미니 스커트와 Mary Quant로 대표될 수 있는 60년대에 1967년부터 새로운 분위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전의 불안과 물질주의에 대한 회의로 인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나선 히피들의 영향이 그것이다. 정돈되지 않은 긴머리, 얇은 진주 머리띠 또는 스카프를 이마에 묶고, 인디언 풍의 헐렁한 튜닉 드레스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히피 스타

32) 1990년 Jerry Zucker 감독으로 Patrick Swayze, Demi Moore 주연의 환상적이고 감동적이며 낭만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Martin, L., 『Movie and video guide 1994』, (New York: Penguin Books, 1993), p. 467.

33) 1990년 Garry Marshall 감독의 Richard Gere, Julia Roberts 주연으로 돈많은 기업가와 가난한 여인의 사랑을 다룬 동화적인 공식의 가볍고 매력적이며 재미있는 줄거리. 자세한 내용은 Ibid., p. 1005.

34) 1989년 John Musker감독의 장편 만화 영화. 자세한 내용은 Ibid., p. 738.

35) 1991년 Gary Trousadale감독의 장편 만화 영화. 자세한 내용은 Ibid., p. 86.

36) 강영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 : 주)사회평론, 1994), pp. 63-9.

37) Vogue (Italy), 1991년, 9월, p. 427.

38) Fuchs, E., 이기웅역, 『풍속의 역사(4)』, (서울 : 까치, 1988), pp. 59-70.

일은 하이 패션에 영향을 끼쳐 화려한 꽃무늬의 얇고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이브닝 드레스 선보였다.[39] 1968년 Yves Saint Laurent은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블라우스를 제시하여 See-Through Look을 제시하였으며,[40] 이 역시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최근 90년대 패션에 나타나는 복식의 가벼움은 언제부터인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987년 봄의 새로운 패션 경향의 하나는 이탈리아의 Giorgio Armani, Romeo Gigli와 Dolce & Gabbana의 새로운 감성으로 시작되고 있다. 구체적인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87년 봄, 밀라노는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의 개성적이며 감성적인 스타일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 얽매이지 않은 스타일, 새로운 자켓의 프로포션, 허벅다리 중간까지 내려온 길고 부드러운 자켓, 그리고 풍성하고 느슨한 스타일의 바지. 이러한 유행에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듯 유연한 얇은 모와 트위드(Tweed), 거의 비치는 실크등 경량감의 소재가 애용된다. Romeo gigli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스트레치 드레스에 비치는 천을 덧붙여 그의 감성을 표현한다.[41]
>
> 88년 봄, 밀라노에서 Giorgio Armani는 부드럽고 편하며, 장식이 적은 스타일을, Romeo gigli는 낭만적인 드레이프진 온몸을 감싼 보티첼리 요정 스타일과 집시풍 스카프, 배부분을 드러내고, 사롱스커트를, Dolce & Gabbana는 풍성한 원피스스타일을 선보인다.[42]
>
> Romeo gigli의 비치면서 몸을 감싼 스타일과 쉬폰의 세겹 치마, Giorgio Armani [사진 1]의 가라앉은 색의 로맥틱한 부드러운 꽃무늬의 여러겹 오간자 치마.[43]

이는 87년 봄에 나타난 밀라노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수타일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는 그 전의 몸에

[사진 1] Giorgio Armani, Vogue (U.S.A), 1988년 1월, p. 162.

[사진 2] Claude Montana, Vogue (U.S.A.), 1988년 12월, p. 319.

39) Bond, D.,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Middlesex: Guinness Superlatives Ltd., 1981), pp. 180-3.
40) O'Hara, G.,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Ltd., 1986), p. 225.
41) Vogue (U.S.A.), 1987년 2월, pp. 183-5.
42) Vogue (U.S.A.), 1987년 12월, p. 244.
43) Vogue (U.S.A.), 1988년 1월, p. 137.

끼며, 구조적인 라인이 강조되는 스타일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감성은 미국 및 여러 디자이너에서도 나타나며, 1988년 12월 보그(Vogue)는 여러 디자이너의 얇고 투명한 스타일을 소개한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Sheer effect가 두드러지고 있다. 비치는 소재의 사용이 이브닝 웨어 뿐아니라 오간디 자켓과 벨트까지 사용된다. 메이크업 역시 투명하며, 립스틱도 엷은 수채와 느낌이다. Romeo gigli는 크림색과 파란색이 어울린 쉬폰의 독특한 주름스커트를, Montana는 검은색의 보일 스커트 [사진 2][44]를 선보이고 있다.

두명한 소재를 사용한 이브닝 웨어로, Oscar de La Renta는 얇은 레이스 상의와 쉬폰 스커트를, Azzedine alaïa는 비치는 느낌나는 니트를 사용[45]하였다.

1989년이후 1994년까지는 복식의 얇고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가벼운 분위기가 이브닝 웨어 뿐아니라 블라우스, 반바지, 웨딩 드레스에도 나타나다. 1989년 6월 Comme des garçon, Azzedine alaïa, Sant'angelo, Dolce & Gabbana[46]등의 예가 있다. 1990년 12월 Isaac Mizrahi의 바지정장으로 이루어진 웨딩 드레스는 비치는 획점이 있는 소재 한겹으로 만들어져 See-Through로 표현되었으며,[47] 1991년 9월 Geoffrey Beene은 망사를 사용하여 무용가에게 오히려 적합한 듯한 깃털처럼 가벼운 옷[48]을, 1992년 3월 Montana의 바바리 [사진 3][49]는 부드럽고 유연한 실루엣이 아닌 빳빳한 소재의 비치는 소재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소개, 성숙 단계에 이른 비치는 얇은 천을 사용한 부드럽고 자유스러우며 흐르는 듯한 스타일은 1987년 봄에 새로 등장한 패션 경향으로, 빌라노의 조지오 아르마니, 돌체와 가바나, 로메오 질리로 부터 시작되어 92년과 93년에 걸쳐 그 성숙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식의 가벼움에 부수적인 현상으로 1992년 3월 Karl Lagerfeld는 Chanel의 전통적인 진주 장신구들 대신 크리스탈과 프라스틱으로 만든 see-through 장신구[사진 4]로 대치하여, 이 크리스탈

[사진 3] Claude Montana, Vogue (U.S.A.), 1992년 3월, p. 209.

[사진 4] Chanel, Vogue (U.S.A.), 1992년 3월, p. 209.

이 무게감 없는 편안함을 준다고 한다.[50]

44) Vogue (U.S.A.), 1988년 12월, pp. 312-9.
45) Vogue (U.S.A.), 1989년 3월, pp. 460-9.
46) Vogue (U.S.A.), 1989년 6월, p. 80.
47) Vogue (U.S.A.), 1990년 12월, p. 318.
48) Vogue (U.S.A.), 1991년 9월, p. 483.
49) Vogue (U.S.A.), 1992년 3월, p. 209.
50) Vogue (U.S.A.), 1992년 3월, p. 209.

## 2. 90년대초 복식에 표현된 가벼움의 외적 형식 및 내용

### 1) 외적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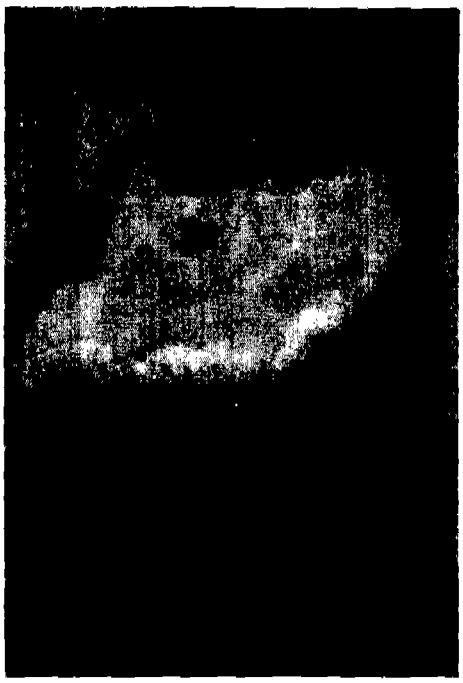
90년대초 복식에서 나타난 가벼움으로 정의되는 외적 형식은 첫째, 그 사용된 소재에 의해 성격이 가장 명확해진다. 복식에서 '가볍다'라는 의미는 '무겁지 않다'의 의미로 이는 직물의 무게보다는 시각적인 투시도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아주 가볍지만 불투명한 실크 주름 드레스를 입었을 경우 '가벼운'보다는 '로맨틱한, 여성적인'으로 그 성격이 나타난다. 즉, 유연하고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의 특성 [사진 5]이 중요하다. 비치며 얇은 오간자, 쉬폰, 머슬린, 레이스, 망사 및 경량감있는 직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레이스의 경우 레이스의 구멍의 크기가 커질 경우, 이는 그물을 연상케하여 가볍다라는 느낌보다 물에 젖어 축 늘어진 듯한 연상작용으로 가벼움보다는 무겁다라는 느낌이 강해진다고 하겠다. 둘째, 복식의 가벼움은 '여유있는'과 관련이 깊다. 신체에 부착되는 정도가

[사진 5] Isaac Mizrahi, Vogue (U.S.A.), 1991년 11월, p. 255.

[사진 6] Dolce & Gabbana, Vogue (Italy), 1992년 2월, p. 269.

덜할수록 가볍다는 느낌을 부여한다. 디자인의 조형상 품의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몸에 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유분을 넉넉히 주며, 주름(개더링, 셔링, 플리세)등의 디자인 요소를 사용 [사진 6]한다. 세째, 전체적인 실루엣은 슬림형과 종형으로 나타나며 상의보다 하의가 더 많은 면적 [사진 7]을 지닌다. 네째, 비치는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겹을 겹치는 방법을 취한다. 두겹내지 세겹으로 옷을 구성한 경우 각기 다른 색을 사용하여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네째, 복식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들롱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주변 환경과 외곽선은 열린 상태이며, 배경과 평면 통합을 이루며, 비한정적인 형태의 속성을 지닌다. 다섯째, 부수적으로 수반된 특징으로 메이크 업은 연하고 약해지며, 장신구의 경우 금속 장신구 대신 투명한 크리스탈이나 프라스틱이 사용된다. 비치는 소재의 사용으로 속옷의 가시성이 증가하여 속옷의 디자인 장식 요소[51]가 강하

51) Vogue (U.S.A.), 1993년 5월, p. 100.



[사진 7] Callaghan, Vogue (Italy), 1992년 2월, p. 266.

게 나타나 Bamboo사에서는 화려한 꽃무늬의 속옷을 1991년 여름에 선보였다.

**2) 내용**

1990년대초 복식의 가벼움은 사회 변화에 의해 나타난 감각·감성주의 대두로 인한 이전시기와 구분되는 복식 표현이라고 하겠다. 18세기 합리주의적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성의 능력에 대한 믿음, 기계론적 자연관, 진보를 향한 열정으로 대표되는 현대성의 개념은 탈현대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 현상은 자본주의하에서 일상생활의 부분이 된 대중 소비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다. 대중 소비 문화는 감각적, 저질적인, 가변적, 유동적인 가치추구등의 특성으로 대표되며 이러한 대중 소비 문화적 특성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또한 복식에도 표현되고 있다. 즉, 사회의 반영인 옷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감감적인 면의 고양, 일시적, 소비적, 통속적 경쾌함과 가벼움의 일면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지난 시대의 삶의 무거움에 대한 변화 욕구로서 가벼움이 대두되어, 몸에 끼는 스타일보다는 흐르는 듯 유연한 스타일을 받아들이며,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자하는 욕구는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가시도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 V. 결 론

앞서 제기되었던 즉, 수 많은 스타일 중에서 왜 특정 스타일만이 대중에게 선호되는가? 그 시기에 선택된 특정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어떤 요인이 선호되었기 때문인가? 의 답을 얻고자 90년대초 복식 현상인, 흐르는 듯 유연하며 자유스러운 스타일에 대한 고찰을 행하였다. 복식의 가벼움으로 분류되는 현 시기의 복식 현상은 사회 환경과 긴밀한 연관으로부터 기인됨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 탈현대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가벼움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변화된 삶의 방식, 가치관등이 복식의 선택에도 작용되어 사회의 단면을 복식이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스타일의 대중적 선호는 인간이 둘러쌓인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행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은 변화되고 있는 삶의 방식, 가치관에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특정 스타일의 외적 형식에 내재된 의미는 무엇인가? 에 대한 분석 예로 90년대초 복식현상을 가벼움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 기본 개념의 타당성은 타 시기의 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본 분석을 통해 밝혀진 복식의 가벼움이란 양식적 특징은 형식적 측면으로 첫째, 복식의 가벼움은 사용된 소재로 부터 그 중요 특성이 부여된다. 즉, 투명하며 비치는 오간자, 쉬폰, 레이스, 망사 및 경량감있는 모직물로 이루어진다. 둘째,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은 슬림형과 종형으로 나타나며 상의보다 하의가 더 많은 면적을 지닌다. 이는 주름 또는 드레이퍼리로 표현된다. 주변 환경과 외곽선은 열린 상태이며, 배경과 평면 통합을 이루며, 비한정적인 형태의 속성을 지닌다. 세째, 부수적으로 수반된 특징으로 메이크 업이 연하고 약해지며, 장신구의 경우 금속 장신구대신 투명한 크리스탈이나 프라스틱이 사용된다. 비치는 소재의 사용으로 속옷의 가시성이 증가하여 속옷의 디자인 장식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90년대 복식의 가벼움이란 그 내용적 측면으로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감각적, 일시적, 소비적, 통속적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90년대 초에 나타난 복식 현상을 복식의 가벼움으로 대표해서 이해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시대는 다원주의를 그 특성으로 하므로 가볍다라는 특성외에 다른 기본 개념과 더불어 현 시대의 복식 현상은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90년대초 복식 현상 서술을 위해 사용된 가벼움이 현 시대뿐아니라 과거의 복식에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인지를 밝히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